

# 성시경 “10년 만에 춤추며 컴백...신인 가수 된 기분”

정규 8집 ‘스(시웃)’ 발매 기자간담회

타이틀곡 ‘아이 러브 유’ 등 14곡 수록

“43세에 댄스곡...좋은 곡들로 꾸몄다”

“10년 만에 앨범을 들고 춤추면서 컴백하니 다.”

‘발라드 황제’로 불리는 가수 성시경이 10년 만에 정규앨범 8집 ‘스(시웃)’로 돌아왔다.

성시경은 앨범 발매에 앞선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메시지가 아닌 한 곡 한 곡 좋은 곡을 모아서 꾸며본 앨범이라며 “제가 말하는 것보다 노래를 듣고 판단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보여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은 사랑, 사랑, 삶, 시간, 상처, 선물, 손길, 시 등 ‘스(시웃)’로 시작하는 우리네 일상 속 행복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담았다.

그는 “사실은 지난해 봄에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하려고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재작년 가을부터 준비해 앨범이고 80% 정도 완성돼 있었다. 코로나19가 와서 저도 당황했고, 기다리다가 앨범이 늦어지게 됐다. 기운은 빠졌지만,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래도 편곡도 진행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았고, 1집부터 준비할 때 마음은 늘 똑같아요. 전체보다는 한 곡 한 곡이 중요해요. 이 노래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편이라 한 곡 한 곡 잘 해내고 싶어요.”

정규앨범 발매가 오래 걸린 까닭으로는 “제가 게을렀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용기가 없었고 외도(방송)를 많이 했다. 부담 없이 싱글을 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끈을 이렇게까지 놓진 않았을 것”이라며 “앨범은 준비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밝혔다.

타이틀곡은 ‘아이 러브 유(I Love U)’로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서툰 설렘의 감정을 사랑스러운 노랫말과 성시경표 감미로운 목소리로 녹여낸 곡이다.

성시경은 “43세에 댄스곡”이라며 “본래 템포가 좀 더 느렸는데, 춤추는 곡으로 만들려고 노래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내일이면 뮤직비디오도 공개되고 춤추는 영상이 공개될 텐데 역시 한계가 있다고 웃으실 수도 있지만 그게 포인트예요. 댄스곡을 연

습해서 많은 분들한테도 저 나이에 열심히 무언가 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렇다면 타이틀곡으로 충분히 힘을 발휘해주지 않을까 했어요.”

타이틀곡 외에도 ‘앤 위 고(And we go)’, ‘방랑자’, ‘우리 한 때 사랑한 건’, ‘너를 사랑했던 시간’, ‘이음새’, ‘마음을 담아’, ‘맘 앤 대드(Mom and dad)’, ‘널 잊는 기적은 없었다’, ‘왓 어 필링(WHAT A FEELING)’, ‘나의 밤 나의 너’, ‘영원히’, ‘자장가’, ‘첫 겨울이니까(With. 아이유)’까지 총 14개 트랙이 수록됐다.

‘방랑자’는 싱어송라이터 조규찬이 작사·작곡했다. 성시경은 “대뷔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제야 조규찬 선배님 곡을 처음 부르게 됐다”며 “듣는 순간 반했다. 여행을 떠나는 느낌, 풍경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선배님이 오케이한다면, ‘방랑자’ 데모곡을 들려드리고 싶다. 더 좋다”며 “본래 당신이 부르려고 쓴 곡에 가이드까지 했으니 조규찬의 곡이다. 그걸 제가 영광스럽게 부르게 됐는데, 부르면서도 데모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게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여기에 이규호, 심현보, 권순관 등 실력과 뮤지션과 작사가 김이나가 참여했다. 성시경도 ‘우리 한 때 사랑한 건’, ‘이음새’, ‘마음을 담아’ 등 수록곡 작곡을 맡아 앨범의 의미를 더했다.

그는 “아무래도 수록곡들에 애착이 더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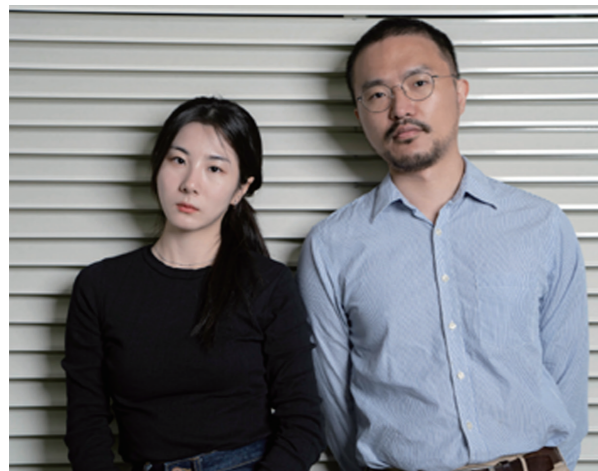
타이틀곡은 유학을 보내준 자식 같고, 깔리는 곡들은 돈을 못 준 자식 같다”고 웃었다.

2001년 ‘처음처럼’ 앨범으로 가요계에 본격 데뷔한 성시경은 어느새 20년차가 됐다. 그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만둘 때까지 사랑 이야기 하고 싶기도 하다. 저는 작품(곡)을 쓰는 것보다 작품을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가수다. 좋은 곡을 내 스타일대로 연기하는 가수라서 앨범으로 전달하려는 저의 성장과 변화가 적

은 편”이라고 말했다.

“요즘 신인 가수 같은 기분이에요. 모든 게 새롭죠. 댄스곡을 하는 것도 신기해요. 이번 앨범은 팬들과의 약속이었죠. 곡 순서대로 음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 팬도 생겼으면 해요. 10년 만에 춤추면서 컴백한 가수가 있다고 많이 알려주세요.”

성시경의 정규 8집 ‘스(시웃)’은 21일 오후 6시에 발매된다.



## 광주 청년팀 50gHD ‘더 러너’ 로마무비어워드 최우수작 수상

전남대 출신들로 구성된 독립영화팀

광주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독립영화팀 ‘50gHD’가 제작한 ‘더 러너(The Runner)’가 이탈리아 ‘로마 국제 무비 어워드’에서 최우수작 품상을 수상했다.

광주문화재단은 ‘2020뫼탄베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50gHD의 ‘더 러너’(생태교란종)가 로마국제무비어워드 ‘4월의 코미디’ 부문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매달 온라인을 통해 국제 영화들을 장르별로 분류해 최우수 작품들을 선정하고 있는 영화제다.

‘더 러너’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입학 을 꿈꾸는 영화감독 지망생 ‘지우’가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실제 감독의 이야기를 20분 분량의 영화로 옮

겼다. 스웨덴 ‘스톡홀름 필름 페스티벌’ 경쟁작으로도 올라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50gHD는 2017년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생들로 이뤄진 영화팀으로 그동안 영화 7편을 만들었다.

‘더 러너’는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청년들을 위해 추진한 문화예술 분야 창작자 활동 지원사업인 ‘뫼탄베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작품이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가 나타났다”며 “50gHD를 비롯해 모든 참여자들이 지역에서 꾸준한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레드벨벳 조이, 솔로 데뷔...‘안녕’ 리메이크



그들 ‘레드벨벳’ 조이가 ‘안녕’으로 첫 솔로 데뷔에 나선다.

오는 31일 오후 6시 발매

오는 31일 오후 6시 발매되는 조이 스페셜 앨범 ‘안녕 (Hello)’은 조이의 색깔로 재탄생된 리메이크곡 6곡이 수록돼 있는 앨범으로 폭넓은 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동명의 타이틀곡 ‘안녕 (Hello)’은 2003년 발표된 가수 박혜영의 ‘안녕’을 리메이크한 모던 록 장르의 곡이다.

힘들었던 지난날을 잊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는 희망적인 가사와 조이의 시원한 보컬이 조화를 이룬다.

경쾌한 브라스 연주에 속도감 있는 편곡이 더해져 원곡과는 또다른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와 함께 20일 0시에는 레드벨벳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안녕 (Hello)’의 분위기를 미리 만날 수 있는 무드 샘플러와 트랙 포스터,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다.

뉴스

## 세븐틴 원우·민규, 28일 유닛 싱글 발매...이하이 피처링

유닛 디지털 싱글 ‘비터스위트’

그들 ‘세븐틴’의 원우, 민규가 디지털 싱글 ‘비터스위트(Bittersweet)’를 발매한다.

20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의 원우, 민규가 오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유닛 디지털 싱글 ‘비터스위트(Feat. 이하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터스위트’는 세븐틴 합창팀 원우와 민규가 선보이는 유닛 곡으로, 가수 이하이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이날 SNS를 통해 공개된 모션 포스터에는 비 내리는 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약 18초 분량 동안 매혹적인 기타 리프 끝 세련된 드럼 비트와 함께 흘러나오는 ‘사랑은 어쩌다 사랑이 됐을까’라는 원우의 호소력 짙은 보컬은 민규와 함께 그려낼 이들의 신곡에 공감을 자아낸다.



앞서 세븐틴은 미니 8집 ‘유어 초이스(Your Choice)’로 오는 6월18일 컴백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여기에 멤버 원우와 민규의 유닛 디지털

싱글 ‘비터스위트’ 발매 소식으로 화려하게 첫 프로젝트 포문을 열며 세븐틴의 컴백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 지브리 첫 3D 애니 ‘아야와 마녀’, 다음달 10일 개봉

최초로 FULL 3D CG 애니메이션에 도전

영화 ‘아야와 마녀’가 6월10일 개봉일을 확정 짓고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영상은 높다란 지붕 위 옥상에서 유령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내려다보는 아야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어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마법사 벨라와 맨드레이크를 따라 미스터리한 저택으로 들어가는 아야의 모습과 함께 신비의 물약을 제조하는 벨라의 공간이 공개돼 공감을 자아낸다.

‘아야와 마녀’는 미스터리한 마법 저택에 발을 들인 마녀지망생 아야의 마법 판타지 어드벤처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첫눈에 반해 5번이나 정독했다

고 알려진 소설 ‘이여귀그와 마녀’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최초로 FULL 3D CG 애니메이션에 도전한 이번 작품은 스튜디오 지브리 사상 가장 과격적인 캐리커처를 예고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기존 스튜디오 지브리 작품에선 볼 수 없던 파워풀한 락 스피릿의 OST까지 담은 이번 작품은 신선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자우림의 김윤아가 메인 테마곡의 가창과 개사에 참여한 것은 물론, 극 중 빨간 머리 마녀 역 더빙까지 맡아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 강호동, 카카오TV ‘머션129’ 23일 첫 방송

구독자들의 혜택 위해 기업 CEO들과 한판 대결 펼치는 프로그램



카카오TV가 새 예능 ‘머션129’의 본격 공개

를 앞두고, 강호동의 카카오TV 적응기를 담은 0회를 공개한다.

‘머션129’는 강호동이 ‘현피를 머션 129’를 운영하며 구독자들의 혜택을 위해 기업 CEO들과 한판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20일 오후 5시 공개되는 ‘머션129’의 0회에서는 카카오TV에 입성한 강호동이 카카오TV 보일러실에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시청자들을 위한 ‘카카오TV CSO’로서의 다짐을 전한다.

강호동은 난생 처음 촬영해 본다는 어색한 ‘브이로그’(일상 기록 영상)로 카카오TV 신고식을 독특히 지른다.

강호동은 카카오TV ‘구독자 최고 책임자’CSO(Chief Subscriber Officer)로, 개인 사무실까지 따로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뻐한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카카오펀터 테인먼트의 제작 스튜디오 내 두세 평 남짓한 작고 허름한 보일러실에 차려진 본인의 집무실을 보고 격하게 실망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실제로 강호동은 처음 경험해 보는 사무실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트북, 전화기 사용법 등을 익히고 앞으로 있을 ‘현피’ 대결에 의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0회에서는 송민호가 강호동과 함께한다. 강호동의 카카오TV 임성을 축하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는 강호동에게 카카오톡 설치 개인 교습을 해주는 것은 물론 강호동이 첫 번째 ‘현피’ 의뢰 전화를 받는 현장에 함께한다.